

5/12(목) 에스라 1-4장 회복, 쉽지 않은 길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1:1-4, 대하36:22-23).

고레스 왕은 칙령을 통해 유대인들의 귀환 및 성전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시작된 70년의 포로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습니다.

(대하36:21, 렘25:11-12, 단9:2, 속1:12,7:5)

공동체 재건이 성큼 다가온 듯 보였지만, 갈 길은 멀었습니다.

❶ 고국으로의 귀환 희망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태생도 다수였고 포로기 동안 자치권, 상업/종교 활동,

부의 축적 등을 인정받았던 터라 귀환보다 잔류를 택하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❷ 귀환한 백성들은 이상과 다른 고국의 현실을 맞게 됩니다.

돌아온 고향 땅, 조상들의 가옥과 토지는 남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날씨, 계속된 흉작, 과도한 세금 등으로 생계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토지를 저당 잡히거나 자녀를 파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포로기 동안 고국에 남아있던 본토 생존자들과의 갈등도 깊었습니다(4:1-6).

하나님은 귀환을 결단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은 이웃들로부터 선물을 받았고(1:4,6, 출3:21,11:2,12:35 비교)

사로잡혔던 곳에서 예루살렘 땅을 향해 출발했으며(1:11, 출3:8,17 비교)

이후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풍성한 예물을 드렸습니다(2:68, 출35:21-29 비교).

귀환행렬은 마치 출애굽 구원의 행렬과 같았습니다(2:64-67, 7:6,7, 8:1, 출12:38 비교).

귀환한 공동체는 존재의 적법성을 위해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돌아온 이들의 명단은 <개인>보다 <조상>의 이름을 더욱 강조합니다(2:3-20).

연고지를 기록하며 <포로기 이전> 마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2:21-35).

이는 여호수아 후반부에 기록된 <약속의 땅 분배>와 관련된 것이며

이들 공동체가 하나님 약속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창12:1-3)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며 예배합니다(스3:2,3).

사회, 경제적 난관으로 핏계 달 것이 많았지만 회복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귀환 후 2년 되던 해, 마침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3:8).

나는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❶ 떠나지 못하고 잔류하도록 붙드는 <이 땅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❷ 찾아야 할 나의 <뿌리>와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시작기도 + 통독 에스라 1-4장